

病變 3例이었다.

4) 血管發生部位로는 大動脈, 大腿動脈, 腎動脈과 膝窩部動脈, 腦動脈등이었다.

5) 4患者 모두 스테로이드 및 利尿劑가 投與되었었고 血清 콜레스테롤치는 500 mg/dl 以上이었으며, 大腿血管 穿刺에 의한 大腿動脈 血栓症을 보인 患者 1例을 제외하고는 모두 血清 알부민치가 2.0 g/dl 以下였다.

6) 4例中 2例은 血栓除去術 및 抗凝固劑 療法을 並行하였고 2例은 抗凝固劑만으로 治療하였으며 모두 증세의 好轉을 보였다.

이상에서 연자들은 腎症候群 患者에서 合例된 動脈 血栓症 4例을 관찰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 45 —

신장이식 15예의 임상적 고찰

고신의대 내과

홍관표·김인영·양상호

박병규·박진석·이시래

신장이식은 말기신장질환 환자에서 생활의 질적 향상과 정상생활로의 재발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당한 공여자가 있을 경우 말기신부전환자의 가장 좋은 치료수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連자들은 1984년 12월부터 1986년 4월까지 고신의대 부속 북음병원에서 시행한 신장이식 15예에서 얻은 임상적 성적을 보고하는 바이다.

수혜자의 성별분포는 남자가 10예, 여자가 5예였고, 연령은 14세에서 51세사이로 30대가 11예로 가장 많았으며, 공여자는 남자가 6예, 여자가 9예였고, 연령은 27세에서 62세까지로 50대가 6예였다. 수혜자의 원인 질환은 14예에서 만성사구체신염, 1예에서 당뇨병성 신질환이었다.

수혜자와 공여자간의 관계는 5예는 형제자매간으로 3예는 HLA 동형, 2예는 1 haplotype 이 같았으며, 8예에서는 공여자가 부모였고, 2예는 부인이 남편에게 공여하였으며, 이 중 1예는 HLA-A 에서 한 항원만 같았고 다른 1예는 모두 같지 않았다.

이식전에 환자는 8예에서는 혈액투석, 7예에서는 CAPD 로 치료를 받았으며, CAPD 환자에서는 이식후 평균 23.5일만에 영구유치 카테터를 제거하였다.

HLA 동형인 3예를 제외한 12예에서는 이식전에 DST 를 시행하였는데, 이들의 이식후 성적은 DST 를 시행한 12예중 10예와 DST 를 하지않은 HLA 동형인 3예,

모두 13예에서 이식신의 기능이 잘 유지되었다.

비혈연자간인 3예에서 DST 를 시행하였는데 DST 만 한 2예중 1예에서는 백혈구 교차 반응이 양성으로 되어 이식을 하지 못하였으나, DST 시작 1주 전부터 azathioprine 을 투여한 1예에서는 백혈구 교차반응이 음성이었다.

면역 억제제로는 azathioprine 과 prednisolone 을 같이 사용한 것이 11예, cyclosporine-A 와 prednisolone 을 같이 사용한 것이 4예였다.

급성 거부 반응이 5예(33.3%)에서 발생하였는데, DST 를 하지않은 HLA 동형인 1예에서는 이식 제11일째에 거부반응이 나타났으며, DST 를 시행한 4예에서의 거부반응은 제 6일, 9일, 12일, 14일째에 각각 발생하였고 평균 10.3일이었다.

합병증으로는 요로감염 3예, 급성 세뇨관성 괴사 2예, 당뇨병 2예, 간염, 신동맥협착, 이식후 신주위 대량출혈, 적혈구 증다증, 혈소판 감소증 및 백혈구 감소증이 각각 1예에서 발생하였다.

요약하면 15예 가운데 HLA-동형 형제간이 아닌 12예(부부간 2예포함) 모두 DST 를 시행하였으며, DST 3주후 직접교차반응이 음성인 예에서의 이식후 결과는 신동맥협착으로 인해 기능상실을 일으킨 1예와 심한 ATN 을 일으켜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1예를 제외한 10예에서 1개월부터 12개월까지 이식신의 기능이 잘 유지되었다.

— 46 —

렘토스피라 혈청 반응에 양성인 3예

경희의대 신장내과

이현수·신동복·최학립

권오선·임천규·김명재

렘토스피라병은 다양한 임상증상을 나타내는 전신감염성 질환으로서 한국형 출혈열과 그 임상증상 및 병의 진행과정이 흡사하며, 혈청학적 검사, 균분리 및 부검소견에 의해 확진이 가능하다.

이에 본 連자들은 렘토스피라 혈청반응에 양성을 보인 3예의 임상상과 검사 소견을 보고하는 바이다.

1) 3예의 연령 분포는 56세에서 63세까지이며 이중 남자가 2예, 여자가 1예이었다.

2) 발생 계절은 11월에서 1월 사이이었다.

3) 임상상은 3예 모두에서 고열, 오한, 두통, 근육통 및 림프노가 있었고 2예에서 기침, 객담, 호흡곤란등

의 호흡기증상을 보였는데 이중 1예에서 작혈이 있었으며 1예에서 심한 부종 및 구토를 보였다.

2예에서 수축기 혈압 90 mmHg 미만의 저혈압을 보였으며 이중 1예는 shock 상태였다.

4) 임상경과는 3예 모두에서 10~14일간의 발열기와 3~9일간의 췌노기가 있었다.

5) 검사 소견은 2예에서 빈혈, 백혈구수 증가 및 혈소판수 감소를 보였으며, 3예 모두에서 단백뇨, 혈뇨, 농뇨를 보였고, 소변 Na 치는 각각 37, 53, 75 mEq/L 였다.

간기능 검사상 1예에서 고빌리루빈 혈증과 2예에서 SGOT 및 SGPT 치의 상승을 보였고 3예 모두에서 알부민치는 떨어져 있었다.

흉부 X선상 2예에서 양쪽 폐에 침윤을 보였는데 이중 작혈을 보인 1예는 속립성 침윤을 보였다.

3예 모두 림프소피라 혈청반응은 양성이며, 이중 2예에서 유행성 출혈열의 항체가 양성이었다.

6) 2예에서 입원 4~6일후 회복기를 나타냈으며 1예에서 입원 15일째 장관부출혈로 사망하였다.

- 47 -

유행성출혈열로 인한 급성신부전에서의 아미노산 정맥투여효과

경희의대 신장내과

정현철 · 최철준 · 최학립
권오선 · 임천규 · 김명재

유행성출혈열은 우리나라에서 급성신부전의 가장 많은 원인중의 하나이고 이 질환의 예후에 급성신부전의 효과적인 치료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유행성 출혈열에서 급성신부전의 조기발견 및 적절한 보조요법과 조기의 빈번한 투석요법으로 치료의 부분적인 개선이 있어 왔지만 아직도 치사율은 6%를 넘는 실정이다. 사구체와 세뇨관기능소실을 방지하거나 회복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다른 치료방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오고있는데 아미노산투여요법이 그 예이다.

이에 연구자들은 유행성출혈열로 인한 급성신부전 진단하에 혈액투석을 받는 환자 24명을 대상으로 아미노산정맥투여 효과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대상환자들을 아미노산계제를 투여받은 환자군 8명(Group I)과 투여받지 않은 환자군 16명(Group II)으로 구분하였다.

1) 입원초기의 혈중 BUN(blood urea nitrogen), creatinine, K의 수치는 양군간에 차이가 없었으나 최고 K수치는 Group I에서 낮았다.

2) 췌노기장은 Group I에서 2.8 ± 0.8 일로서 Group II의 4.8 ± 1.0 일에 비해 의미있게 짧았다($P < 0.005$).

3) 입원후 혈청 creatinine이 최고치로 증가한 날짜지의 기간은 Group I에서 3.8 ± 1.1 일로서 Group II의 6.4 ± 0.8 일에 비해 의미있게 짧았다($P < 0.005$).

4) 혈액투석의 시행횟수는 Group I에서 3.1 ± 0.3 일로서 Group II의 4.6 ± 0.5 일에 비해 의미있게 적었다($P < 0.005$).

5) 그러나 혈청 creatinine이 5 mg/dl 미만으로 개선될 때까지의 기간은 양군사이에 차이가 없었다.

6) Group I에서는 사망한 예가 없었고 Group II에서 16명중 4명이 사망하였다(25%). 결론적으로 유행성출혈열로 인한 급성신부전에서 아미노산투여가 치료방법으로 추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 48 -

신장이식후 발생한 자가면역 용혈성 빈혈 2예

가톨릭의대 내과

이길환 · 양철우 · 조현미
윤영석 · 방병기

대한적십자사 혈액원
오 영 철

신장이식후 cyclosporin 과 prednisone 을 사용한 2예에서 수술후 2~3주사이에 자가국한성(self-limited)의 자가면역 용혈성 빈혈을 관찰하였다.

환자들의 혈액형은 모두 A⁺, Rh⁺형이었으며, 각각 O⁺, Rh⁺형인 모친으로부터 신장을 제공받았었다. 수술전 시행한 HLA는 haploidentical 이었으며, cross matching 검사상 cytotoxic antibody는 음성이었다.

혈청학적 검사상 직접 Coomb 씨 검사는 2예에서 양성이었으나, 간접 Coomb 씨 검사는 음성이었다. 증례 2예에서는 anti-A antibody가 양성으로 검출되었으며 증례 1에서는 검사를 시행하지 못하였다.

증례 2에서는 투여되었던 약제중 CsA와 bactrim에 대한 항체검사는 음성이었다. 2예 모두 치유경과증 자연회복되었다.